누구나 들어오고 싶어하는 **ᄎ르키 모백호**

가격: 19만 / Cash (1Bed + Den) 위치: OC (비치& 링컨). 초로키 모빌홈 월 약 \$500 + 유틸리티 10년후 \$211 + 유틸리티

213.505.8577 Mr. Lee



전 당 포

가주 최대 규모 / 최고 가격 보장 한인 최초 감정사 / 절대 비밀 보장 각종 명품, 귀금속, 시계

(714) 647-0005 / (714) 647-0007 318 W. 4th St., Santa Ana, CA 92701

연준, 기준금리 동결 … 1.50~1.75% 유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현행 1.50~1.75%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지난 7월말 이후 세 차례 연속으로 진행한 기준금리 인하 행진을 끝내고 다시 동결 모드로 들어간 것이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연준은 전날까지 이틀간 통화정책회의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 의를 열어 통화정책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FFR)를 현행 1.50~1.75%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중 무역분쟁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있지만 미국의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제 상황과 노동시장 여건 등을 고려할 때 금리를 변화시킬 요인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준은 지난 10월 금리 인하 당시 성명에서 "경기 확장을 지속하기 위해 적절히 행동하겠다." 는 문구를 삭제해 당분간 금리 동결 기조로 전환할 가능성에 무 게를 실은 바 있다. 실제로 블룸버그가 주요 투자은행 (IB)의 전망치를 집계한 결과 이번 FOMC에서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예상한 IB가 전체 89곳 중 100%에 달했을 정도다.

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 와중인 지난 2008년 12월 기준금리를 0.00~0.25%로 인하해 사실상 '제로 금리'로 떨어뜨렸다.이후 미국이 금융위기를 극복하고 경기가 회복되면서 2015년 12월 7년 만에 처음으로 금리를 올린 것을 시작으로 긴축기조로 돌아서 2016년 1차례, 2017년 3차례, 지난해에는 4차례 등총 9차례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과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주 요국의 저금리 정책에 영향을 받아 지난 7월말 10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내렸고, 이후 9월과 10월에도 각각 0.25%포인트씩 인하했다.

미 CEO들 경기 전망 7분기 연속 내리막

미국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올해 4분기 미국 경기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로써 CEO들의 경기 전망은 7분기 연속 내리막을 나타냈다.

11일 미국 CEO 모임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 (BRT)' 이 지난 11월 14일부터 이달 3일까지 회원 140명을 상대로 설문한 결과 올해 4분기 'CEO 경기전망지수' 는 76.7로 전분기보다 2.5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2002년부터 시작된 이 조사의 평균지수가 82.7인 것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며, 분기 지수가 하락 하기는 7분기 연속이라고 BRT는 지적했다. 또 CEO 들이 무역전쟁 및 글로벌 성장의 둔화 등에 직면에 조 심스러운 자세를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때분기 발표되는 이 지수는 CEO들의 매출, 설비 투자, 고용 전망을 반영한 것으로, 향후 6개월간 미국

경기 전망을 보여준다. 지수 범위는 -50부터 150까 지로,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을, 이하면 경기 위축을 의미한다.

BRT는 성명에서 "CEO들은 무역정책 불확실성과 글로벌 경기, 미국 제조업 부문의 둔화에 직면해 여전 히 신중한 상태" 라고 설명했다.

CEO들은 내년 상반기 매출 증가를 예상하는 한편 고용과 설비 투자는 줄일 계획이라고 답했다. 내년 미 국의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했다.

BRT의 회장인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는 "몇몇 정책 영역에서는 진전이 있었지만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협정에 있어선 더 많은 진전이 필요하다." 고 말 했다.

월마트, 휴스턴서 자율주행차로 식료품 배달

월마트가 실리콘밸리의 로봇 스타트업 '뉴로' 와 손잡고 미국 텍사스의 휴스턴에서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식료품 배달을 시작한다.

12일 '연합뉴스' 가 워싱턴포스트(WP)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뉴로는 이미 올 한 해 이 지역에서 자율주행차를 이용해 식료품과 피자 배달 서비스를 해왔다. 월마트와 뉴로는 휴스 턴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이 서비스를 시작한다. 뉴 로의 자율주행 기술이 적용된 도요타 프리우스와 뉴로의 자율주행 배달차 'R2' 가 배송을 맡는다.

처음에는 뉴로의 고객을 상대로 시작하지만, 내년에는 일반 소비자 전체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톰 워드 월마트 수석 부사장은 "자율주행 기술을 배달 옵션에 추가하면서 고객 수요에 대해 더 많이 배운다." 며 "월마트의 미래 배달 서비스를 진화시키겠다." 고 말했다.

월마트는 이미 미국 내 1천600여개 매장에서 사람을 통한 식료품 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와함께 약 3천100개 매장에서는 온라인으로 식품을주문한 뒤 매장에 들러 가져가는 서비스도 시행 중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뉴로 외에도 아마존이나 구글의 웨이모, 제너럴모터스(GM)의 크루즈, 로보마트, 포 드와 제휴한 아고 AI, 스타십 테크놀로지 등이 자 율주행 시장을 놓고 경쟁하고 있다.

WP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들 기업의 목표는 자율주행 교통이라는 새 시대에 기반을 확보할 가 능성을 높이면서 대중의 신뢰를 얻고 실생활에 편 리함을 가져다주는 것" 이라고 밝혔다.

